

서운영의 집과 사람



주택가 골목길의 카페

최근 거리 곳곳에서 유난히 커피 전문점과 카페가 많이 보인다. 도심지 대로변의 커피숍은 구멍가게나 편의점처럼 쓰임새가 있겠지만, 이면도로는 물론 대학가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카페는 어떻게 보아 할까.

이는 값비싼 브랜드 커피전문점 대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틈새시장의 성장, 청년층의 취업난과 장년층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의 증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견고하게 보자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견고하게 보자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카페의 역사는 제국주의 시절의 영국과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귀족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방은 식당과 응접실(프랑스에서는 살롱(salon), 영국에서는 팔리어(parlor)라고). 정기적인 손님 초대와 그에 따른 의례적 접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할 식당과 응접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곳이 가장 정성들여 꾸미는 방이기도 했다.

그런데 18세기 식민지 개척으로 국부가 증가하면서 그 틈에 돈을 모은 신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귀족 주

택을 모방해 지은 중산층 주택에는 식당과 응접실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의 레스토랑과 카페도 자주 이용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생산된 흥차와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에서 재배된 커피의 새로운 소비시장이기도 했다.

그 후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한다. 시골 출신인 이들은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상경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대여섯 명의 아이가 딸린 대가족이 단간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예사였다.

이에 영국정부가 급히 노동자 주택을 지원해 보급했지만 부엌과 거실 하나에 두 개의 침실로 이루어진 작은 주택이 고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과 응접실은 고사하고 개인 침실을 갖기도 어려웠다. 이때 가정이 아내와 아이들을 피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펍(Pub)과 카페가 유행하게 된다. 그곳은 몇 푼의 돈으로 간단 술이나 음료를 마시며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은 장소였다.

그리하여 1차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20세기 초반에 되면 파리에는 약 50만 개의 카페가 생겨난다. 인구 100명당 하나에 해당

하는 수치로서 이는 카페가 더 이상 중산층 문화가 아닌 서민문화이자, 노동자문화가 되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카페는 파리와 런던보다 인근의 공업도시에서 더 성행하였다. 도시의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신흥 공업 도시인 경우에는 인구 50명당 카페 하나가 있을 정도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의 카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빚어낸 노동자문화이며, 이제 노동자는 근로자 혹은 사무직 종사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카페에서 자투리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태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파리 시내에 즐비한 카페를 들여다보면 낭만보다는 고단한 노동자의 일상이 엿보인다.

주로 짧은 시간에 손님이 많은데 샌드위치에 커피 한잔을 곁들여 점심을 때우거나 거리를 향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파리의 세련된 모습에 가려져 미쳐 보이지 않는 카페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느 새 우리의 대도시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생의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조그만 카페가 들어서 있다. 주로 혼자 앉아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

고 있고, 제법 공부에 열중인 학생도 있다. 때로 서너 명의 주부가 모여 앉은 곳에서는 동네 마실 온 것 같은 수다가 한창이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집 밖으로 나와 카페에서 하는 이유는 점점 열악하고 협소해지는 주택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4~5인 가구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1~2인 가구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주택 면적도 차츰 작아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데 주거 환경도 이들이 가장 열악할 것이다. 원룸은 그나마 다행이고, 때로 책상과 침대가 전부를 차지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좁고 답답한 집에서 혼자 사는 이들이라면 하루에 얼마 동안이라도 햇빛이 잘드는 넓고 평평한 곳에서, 비록 혼자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일일망정 모르는 타인하고라도 어울려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학가 이면도로에 또한 주택가 골목길에 카페가 있는 이유이다.

어찌면 유럽의 노동자문화라 할 수 있는 카페가 지금 한국에 상륙하여 슬픈 현실을 애써 가리고 있는 게 아닐까.

〈건축 칼럼니스트〉

종교칼럼



일선
장흥 보림사 주지

당근과 채찍

지만 지나치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화는 불기운으로 지나치면 몸을 상하고 숲에 불이 나면 모든 것을 태워 버리듯 쓰이온 그간의 복덕을 허물어 버리니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운을 열정으로 승화시키면 어두운 기운은 물러가고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세상의 큰 일을 성취합니다.

둘째로 바람의 재난이라 지나친 허영심으로 사기를 치고 노력 없이 큰 대가를 바라거나 물지마 투자를 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한편 몸을 함부로 늘려서 쓰이온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변화의 원동력이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물의 재난으로 지나치면 산과 들을 무너뜨리고 물이 무겁고 차가워 병이 생기거나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일체 대상에 머물지 않고 기다리고 차고 넘치면서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듯 지혜롭게 처신하면 세상에서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과 바람과 물의 세 가지 요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지나치면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춘을 맞이하여 몸에 부적을 지나거나 삼재가 들 사람의 옷을 태우고 절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매사를 조심하려는 뜻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만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로 불의 재난이라 요즈음 말로 풀이하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힐링소스가 되

조화란 결국에는 음과 양의 조화이며 느낌과 빠름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명마를 조련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당근과 채찍이며 복덕을 허물어 버리니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운을 열정으로 승화시키면 어두운 기운은 물려가고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세상의 큰 일을 성취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을 치는 사람을 만나서 길에는 법을 물으니 거친 말은 먼저 부드럽게 당근으로 다스리고 다음엔 힘차게 채찍으로 다스리며 끝내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서 세상에 위 없는 잘 길들여진 명마를 길리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끝없는 스트레스로 방황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요한 적정처(寂靜處)를 찾아서 끝없이 일어나고 사람에게는 번뇌를 다스리는데 먼저 고요함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에 집착하여 머무르면 현실에 둔해지고 느낌에 점지되며 속도감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오랜 세월 어리석음으로 억제한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려워 선정과 지혜인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지 않으면 삼재의 재난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마치 살얼음이 생기고 거친 습관을 간절히 살피고 알아차려 한 조각의 삼매를 이루어야 한다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뺏길 깊이 사무치는 추위가 한번 지나가야 코를 쐬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어리석음으로 억제한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려워 선정과 지혜인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지 않으면 삼재의 재난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마치 살얼음이 생기고 거친 습관을 간절히 살피고 알아차려 한 조각의 삼매를 이루어야 한다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뺏길 깊이 사무치는 추위가 한번 지나가야 코를 쐬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어리석음으로 억제한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려워 선정과 지혜인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지 않으면 삼재의 재난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마치 살얼음이 생기고 거친 습관을 간절히 살피고 알아차려 한 조각의 삼매를 이루어야 한다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뺏길 깊이 사무치는 추위가 한번 지나가야 코를 쐬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영리해서 정보의 수집으로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느낌이 선정과 빠름이 지혜가 아무런 간격이 없어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위 없이 잘 길들여진 말이 왕의 수레를 끌고 가듯 세상을 향하는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p